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합니다

KBS 사보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vol.665

2년 만의 공채, 지상파 3사 중 KBS만이 지속적 관심

지난 7월 15일 <개그콘서트>의 코너 '잠깐만 홈쇼핑'에 이번에 뽑힌 신인 코미디언들이 깜짝 출연했다. 40초 정도의 짧은 출연이었지만 KBS 개그의 새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끼 넘치고 열정 가득한 32기 신인 코미디언 11인을 KBS 사보가 만났다.

밝고 톡톡 튀는 새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사진 스튜디오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코미디 연기자들답게 다채로운 포즈와 애드리브로 분위기를 띄웠다. 평균 연령 27세, TV 방송보다 유튜브가 더 익숙할 듯한 이들은 타사 공채, 극단 출신부터 스물 셋 앳된 신인 연기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녔다. 선발을 담당한 양혁 PD는 "코미디 구성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순발력과 창의성이 있는지 등을 봤다"라고 말했다. 공개 코미디 시장의 침체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영상 콘텐츠는 점점 더 짧아지고 개인 방송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는 요즘, 이런 흐름에 익숙한 젊은 피의 활약이 밝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지 더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개그콘서트 부흥기 다시 한 번 이끌고 싶습니다"

KBS가 신인 코미디 연기자를 선발한 것은 2016년 6월 이후 2년만이다. 공개 채용 자체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방송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지상파 3사 중 KBS가 유일하다. MBC는 2013년 이후 공채를 중단했고 SBS 역시 2017년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폐지하면서 2016년이 마지막 공채가 되었다. '공채 가뭄'이라는 말이 돌 정도다. 특히 코미디언들은 공채로 데뷔하는 것 외에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공채의 의미가 더 크다. 양혁 PD는 "공개 코미디와 공채 시스템을 유지 한다는 것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중요한 가치 외에도 예능 출연자의 한 축을 지속적으로 기르고 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유재석, 김병만, 이수근, 김준호, 신봉선 등 많은 코미디 연기자들이 지금도 활약하고 있으며, 코미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KBS 예능 발전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32기 신인 코미디언 정진하는 "공개 코미디의 위기라고 불릴 만큼 힘든 시기이다. 묵직한 선배들의 내공과 신인의 패기와 신선함으로 개그콘서트의 부흥기를 다시 한 번 이끌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INSIDE | **3면** 국민의 마음 담은 '한국 사람' 프로젝트 1주년 **5면** <저널리즘 토크쇼J> 제작 현장을 가다 **6면** 돌아온 <명견만리> 시즌3

변화와 혁신의 KBS, 시민의 품으로 한 발짝 더…

양승동 사장은 취임사에서 KBS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KBS의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행보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성평등 정책으로 요약된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공영방송의 가장 기본 원칙임에도 쉽게 무시돼왔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 KBS 시청자위원회는 그동안 편파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수차례 논란을 겪어왔다. 산적된 정상화 과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시민 사회와 성평등 시대에 걸맞은 KBS의 혁신 정책들을 소개한다.

투명성·공정성 강화한 KBS 시청자위원회

성평등 문화 선도하는 KBS 성평등센터

투명하게…KBS 시청자위원회 회의 사상 첫 생중계

지난 19일 KBS 시청자위원들의 7월 정례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그동안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는 비공개로 운영됐다. 시청자이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KBS 시청자위원들이 KBS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공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의는 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 품에 안겨드립니다'라는 취지 아래 새롭게 진행됐다. KBS 공식 페이스북과 공식 앱 'my K' 등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됐고 시청자의 알권리와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였다.

젊고 투명해진 KBS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공개	비공개였던 정례회의 7월부터 인터넷 생중계
투명성·공정성 위한 운영규정 신설	별도 선정위 구성 → 위원 선정 공정성 강화
	연령별·성별 균형에 중점을 두고 20대 젊은 시청자위원 선발 계획
	지역 시청자위원회 근거조항 신설
임기 개정	임기 1년에 2회까지 연임 가능 → 임기 2년에 1회까지 연임 가능
추천 가능 단체 개정	추천 가능 단체 10개에서 문화단체·인권단체 포함 12개로 확대

별도의 선정위원회 구성…공정성·투명성 UP

사상 첫 정례회의 생중계에 앞서 지난달 27일엔 KBS 정기이사회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KBS 시청자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위원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먼저 선정위원회 규정을 신설해서 과거 사측의 일방적인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선정 위원(총 9명)을 구성할 때 실무자 측 대표 3명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동안 사측 대표들로만 구성됐던 선정위원들로 인해 불거졌던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령별·성별 균형에 중점을 두고 시청자위원 선발

개정안에서 또 눈여겨볼 것은 연령별·성별 균형에 중점을 두고 시청자위원을 선발한다는 점이다. 10~20대 젊은 위원들을 포함시키고 특정성별의 비율을 일정 이상 유지하도록 하여 시민 참여 기회를 높였다. 시대 변화에 걸맞게 더욱 폭 넓은 시청자 층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또 하나의 목표다. 이밖에도 그동안 자발적으로 운영됐던 지역국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했다. 또 위원들 임기는 1년(2회 연임 가능)에서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늘렸고, 추천단 범주에 문화와 인권단체를 추가해서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하는 등 한걸음 더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KBS의 노력과 의지를 개정안에 담아냈다.

국내 방송사 최초 KBS 성평등센터 신설

시청자위원회 구성에서 엿본 성평등에 대한 의지는 KBS 성평등센터 출범에서도 확인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8일 오후 사장 직속 상설 조직인 성평등센터 신설을 의결했다. KBS 직장 내 성폭력 사안을 조사·처리하고 성평등 제도 개선을 전담한다. 국내 방송사 사상 최초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성평등센터 설립은 지난 4월 6일 취임한 양승동 KBS 사장이 성평등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KBS 양대 노동조합 및 KBS 여성협회 등과 전담기구 신설을 포함한 성평등 제도 및 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의해 그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성평등센터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성평등 자문 위원회를 운영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 성폭력 예방 지침 및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연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방지조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방송사 최초로 상설 조직으로 신설된 KBS 성평등센터가 향후 방송 산업 내 성평등 문화 정착에 얼마나 기여할지, 벌써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마음을 담습니다. 마음이 닿습니다”

국민의 마음 담은 ‘한국 사람’ 프로젝트 1주년

‘한국 사람’ 공식 홈페이지 http://koreanarchive.kbs.co.kr

‘마음을 담습니다. 마음이 닿습니다.’ 울림과 공감이 있는 슬로건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희망을 전해 온 KBS 연중 캠페인 ‘한국 사람’이 1주년을 맞았다. 2017년 7월부터 한국의 대표 사진작가 강영호와 함께 매 주 한 명씩 보통의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정해서 그들의 일상과 마음,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고품질의 사진과 영상으로 담담하고 진정성 있게 기록해 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방송사 최초 미국 뉴욕 TV & 필름 페스티벌 ‘방송사 이미지 홍보’부문에서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 사람’ 시즌 1의 주인공들 중 은평소방서 구조대 서기원, 20대 쌀집 청년 김병욱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팀 이규선 코치에게 ‘한국 사람’에 대한 기억과 시즌 2의 기대를 물어보았다.

> 숨은 우리네 삶 조명하는 한국 사람,
> 그 진심과 희망, 쭉 안고 가길

묵묵히 할 일 하는 작은 손길 조명에 공감 서기원_은평소방서 구조대

우리 일상 속에서 묵묵히 제 할 일들 하는 작은 손길을 조명한다는 것에 큰 인상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다. 촬영 전 다른 참여자 분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고 가슴 뭉클함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저희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조명될 때 다른 분들도 제가 느꼈던 것처럼 감동과 공감을 느껴주시길 바랐다. 또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꾸준히 응원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한국 사람’은 감동과 공감을 주고 무엇보다 우리네 삶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지금처럼 현실적이면서도 감동과 희망이라는 진심을 쭉 안고 갔으면 좋겠다.

시청자들에게도 진심이 닿았으면 김병욱_20대 쌀집 청년

무엇보다 ‘한국 사람’의 취지에 공감이 갔다. 특별하진 않지만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충분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에 나도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국민으로서 ‘한국 사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었다. (쌀집을 공동 운영하는) 두 친구들과 촬영하면서 그동안 함께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던 기억을 떠올렸고 서로 끈끈히 연결된 그 마음이 시청자들에게 담겨지기를 바랐다. 또 쌀을 판매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그 진심 역시 사진과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닿았으면 했다. 지금처럼만 ‘마음을 담습니다. 마음이 닿습니다.’에 깃든 초심을 잃지 않고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평범함 속에 담긴 빛과 희망 보는 ‘한국 사람’ 이규선_여자 아이스하키팀 코치

국내에서 여자 아이스하키는 비인기 종목이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존재를 알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 종목에도 열정을 다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한국 사람’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 열정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도 어디선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다. 그런 노력들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과 앞으로 자라날 아이스하키 후배들에게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한국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 속에 담긴 빛과 희망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점점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이 알 수 있는 ‘한국 사람’처럼 그저 외면하지 않고 곳곳에 관심을 두는 프로그램들을 올곧게 제작해 주시길 바란다.

'무슨 말을 해줄까?'라는 뜻의 제주 방언

"밋밋한 시골밥상 같지만 제주 내음 가득합니다."
최초의 제주어 100% 드라마 <어멍의 바당>

지역 방언을 기반으로 만든 최초의 장편 드라마

젊은 제주 사람들도 한 번에 잘 알아듣기 힘들다는 제주어. 2010년 유네스코는 제주어를 소멸위기언어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지정했다. 이런 제주어의 위기 속에서 KBS 제주방송총국이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제주어로 된 12부작 미니시리즈 <어멍의 바당>을 선보였다. 지역 방언을 기반으로 장편 드라마를 만든 건 <어멍의 바당>이 최초다.

오롯이 지역이 주인공이 된 드라마 <어멍의 바당>

지역의 작가가 대본을 쓰고 지역의 연기자들이 연기를 한 <어멍의 바당>은 아름다운 제주의 천 년의 섬 비양도를 배경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들의 삶과 문화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 강단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일하는 기자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해녀지만 주인공은 해녀문화를 싫어한다. 그런 그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를 취재하기 위해 고향을 다시 찾게 된다. 이 드라마는 어머니의 인생인 바다를 찾은 주인공이 점차 어머니와 할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그 안에 제주어는 물론 해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비양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녹여냈다.

최초의 제주어드라마 <어멍의 바당>을 기획·제작한 양천호 PD(제주방송총국)를 사보가 만나봤다.

Q 제작하게 된 계기는?

양천호 PD
제주방송총국

그 동안 제주의 역사와 문화, 인물들을 소개하는 다큐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봄, 이번에는 드라마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의견이 나왔다. KBS 제주방송총국에서 만든 드라마를 다른 드라마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름다운 제주 자연을 많이 담는 것과 제주어와 같은 제주만의 문화를 담아내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철저하게 100% 제주어로만 된 제주의 색깔을 기록하는 드라마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Q 첫 방송 이후 반응이 궁금하다.

제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보니, 시청자들이 과연 그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큰 사건 없이 잔잔하게 진행되는데다, 표준어 자막이 나오다 보니 큰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젊은 시청자들이나 제주 이외 지역에서도 시청 문의를 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래서 제주에 살지 않는 시청자들을 위해 유튜브나 페이스북 라이브도 함께 하고 있다.

Q 어려웠던 점은?

드라마 촬영이라 하면 대규모 촬영팀과 장비, 스태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일반 프로그램이나 다를 바 없다. 10여 명의 연기자들과 2명의 카메라감독, 2명의 PD, 오디오맨 4명으로 두 개 조를 꾸려 약 1주일간 비양도에 머물며 <어멍의 바당> 촬영을 시작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촬영하다보니 회차와 상관없이 촬영이 진행돼 연기자들이 감정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아 힘들어 하기도 했다. 또 소품팀이 따로 없어 배우들이 소품용 음식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시도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했고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Q 공영방송 KBS만이 할 수 있는 기획이라는 평이 많다.

제주어 소멸을 막기 위해 사전을 편찬하거나 관련 책을 보급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은 많이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은 시도된 적이 없다. <어멍의 바당>은 뭔가 만듦새가 엉성해 보이고 막장 스토리도 없는 밋밋한 시골밥상 같은 드라마다. 유명 배우도, 화려한 볼거리도 등장하지 않지만 사라져가는 해녀문화와 제주어를 좀 더 쉽게, 드라마를 통해 지역 시청자들과 고민하고 보존해가려 한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역의 시청자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하는 것이 KBS의 미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의 시청자도 똑같이 2,500원의 수신료를 낸다. 각 지역마다 자신만의 문화와 말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공영방송 KBS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제주어를 바탕으로 한 시트콤도 만들어보는 등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보고 싶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분, KBS 제주 1TV

현장 취재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의 새 바람 새 기운
<저널리즘 토크쇼J> 제작 현장을 가다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저널리즘 토크쇼J>의 스튜디오 녹화 현장을 찾았다.

저널리즘과 토크쇼 재미를 동시에

"무더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J>입니다." 진행자 정세진 아나운서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바깥 폭염만큼 열띤 토크의 막이 올랐다.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와 '최강 팩트폭격기' 최강욱 변호사 그리고 '팟캐스트 황태자' 방송인 최욱 등 현직 전문가 패널들이 이날의 주제 '안희정 전 지사 공판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쏟아냈고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인 선정성과 겉핥기식 보도 실태를 꼬집었다. 2부 격인 초대석 자리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패널들의 촌철살인의 입담이 더욱 빛을 발하며 녹화시간은 어느덧 4시간이 넘어갔다. 재미와 저널리즘,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제작진과 패널들의 열정이 스튜디오를 뚫고 나오는 듯 했다.

별도의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와 소통

<저널리즘 토크쇼J>는 2년 만에 부활한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으로 지난 6일 17일 첫 전파를 탔다. 장자연 사건과 언론, 장충기 문자 속 삼성과 언론, 가짜뉴스 실태와 대책 등 굵직한 이슈들을 집중 분석했다. 여기에 트렌디한 토크쇼 형식을 가미해 웃음과 재미도 추구하고 있다. 신선하다는 시청자 평가와 응원 섞인 비판이 첫 방송부터 이어지고 있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팟캐스트 등 별도의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의 피드백을 받아 적극적인 소통도 꾀하고 있다. 공영방송 KBS 저널리즘 프로그램에 새 바람 새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저널리즘 토크쇼J>. 앞으로도 공영성 있는 좋은 콘텐츠로 한국 저널리즘 수준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그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 1TV**

INTERVIEW

"<저널리즘 토크쇼J> 취지를 잊지 않는 것이 매회 다짐하는 각오"

첫 방송 이후 한 달여가 지났다. 그 동안의 성과와 소감을 듣고 싶다.

언론 스스로에 대한 비평, 비판을 다룬 프로그램의 부활이라는 성과는 시작점부터 주어진 것이었고,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관련 업계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재미와 저널리즘,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 녹화 전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하거나 숙지하는 점이 있는지?

첫째는 무조건 주제에 대한 내용 파악과 중심잡기이다. 주제에 대한 관련 기사들을 훑어보면서 나의 스탠스를 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심이 된다. 나의 주관이 은연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주제와 관련된 지인과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듣는다. 주제가 정해지면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 작업의 반복 후 녹화에 들어간다. 그 다음이 재미인데, 재미는 녹화 중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나온다. 함께하는 패널 분들 모두 그런 유머 코드나 능력이 상당하신 것 같다.

고충도 아쉬움도 많을 것 같다.

매주 주제를 정해 나가고 동시에 치밀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 한계를 많이 느낀다. 2주에 한 번 정도 방송이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충분히 내재화 되지 않은 발언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많아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녹화를 끝내도 제작진의 고민은 계속된다. 보통 녹화를 수요일에 3시간 가량 하고 후반작업을 3, 4일 동안 거의 밤새면서 한다. 정말 힘겹지만 서로에게 민폐가 되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 제작진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에 임하는 느낌이 오랜만에 들고 있다.

매체 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KBS 저널리즘 프로그램의 역할은?

KBS 저널리즘 프로그램이 다매체 시대의 기본,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싶다. 공영방송으로서 자극적이지 않아도 고개가 끄덕여지게 하는, 시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저널리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언론인으로서 해야 될 말과 행동의 일치에 신경을 쓰게 하는 균형 장치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첫 방송부터 성역 없는 미디어 비평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 아직 KBS 자사에 대한 비평은 부족하다는 시청자 평가도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현지 취재 건과 장자연 사건 보도 등에 관해 다루긴 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것이다. 시청자들의 평가를 수용하면서 주제에 따라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본다. 보도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의견과 자아비판을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진행자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

이 프로그램의 본 취지를 잊지 않는 것이 매 회 다짐하는 각오이며, 앞으로의 계획 역시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는 것이다.

꾸준히 응원과 비판을 보내주는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청자는 냉정하다. 아니다 싶으면 단호히 등을 돌린다. 뭐든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낀다. 그래서 첫 방송부터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신 시청자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지금처럼만 애정 섞인 쓴 소리와 지지의 목소리를 계속 전해주시길 바랄 뿐이다.

정세진 아나운서
<저널리즘 토크쇼J> 진행자

‘한반도 평화의 시대’ KBS가 함께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KBS가 스페셜 CI(Corporate Identity)를 확립했다. ‘함께하는 평화, 함께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대표 방송사로서의 의미를 담았다. 메인 심볼과 로고 등은 배너, 스티커, 기념품 등 다양한 브랜딩에 활용 가능하며 다음 달 개막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사용할 예정이다.

메인 심볼 로고

배너 디자인

사용 예

더 날카로운 통찰, 화려한 라인업 <명견만리> 시즌3 리턴즈

김제동·심상정·대도서관… 놓칠 수 없는 라인업

렉처멘터리(Lecture+Documentary)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던 <명견만리>가 시즌3로 돌아온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명견만리>는 화려한 라인업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시즌3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방송 ‘장벽사회 2부작’에서는 ‘토크쇼의 최강자’ 방송인 김제동과 시원한 입담의 국회의원 심상정이 프리젠터로 나선다. 이밖에도 ‘1인 미디어계의 유재석’으로 불리는 유튜버 대도서관과 ‘힐링 멘토’ 혜민스님을 비롯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명강연을 준비 중이며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첫 강연 주자로 나선 방송인 김제동은 <명견만리> 블로그에 공개된 셀프카메라를 통해 “전문가분들이나 석학들만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즐겁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공존 – 장벽을 넘어 보다 나은 미래로’

2015년 3월 첫선을 보인 <명견만리>는 시대를 꿰뚫는 다양한 주제와 뜨거운 토론의 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시즌제 프로그램으로 안착했다. 시즌3에서는 ‘공존’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한다. <명견만리> 임기순 CP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장벽들이 견고히 쌓여있다. ‘격차 사회’를 넘어 ‘장벽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벽이 더 두터워지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명견만리> 시즌3는 우리 사회의 장벽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청자의 참여로 완성되는 프로그램

<명견만리>는 시청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해당 이슈에 관심이 있는 유명인사가 직접 현장을 밀착 취재해 강연으로 엮어 소개하면, ‘미래참여단’이라 불리는 청중들이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며 프로그램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이다. 미래참여단은 방송 참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가면서 우리 사회를 관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한다. 시즌3에서는 장벽 사회, 기본소득, 게임 산업, 법 정의와 외로움 등의 주제로 소통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명견만리>에서는 미래참여단 외에도 매 강의마다 청중들을 모집하는데, 명견만리 블로그(https://blog.naver.com/kbsgoodinsight)에서 신청 가능하다. <명견만리>는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볼 많은 시청자들에게 열려있다.

▶8월 3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 1TV

단신

‘초연결사회, KBS 지역방송의 모습은?’ 공영방송발전포럼 열려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지난 20일 KBS 대전총국 대회의실에서 ‘초연결사회, KBS의 지역방송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를 주제로 ‘공영방송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KBS의 9개 지역 총국장과 8개 지역국장들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로컬리즘은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을 해서라도 지켜야할 가치이기 때문에 KBS는 일정한 마스터플랜 하에 꾸준히 예산·인력을 증가시키면서 장래의 수신료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류해남 지역정책실장은 대전지역 시청자 서비스 수요 조사를 토대로 지역시청자가 원하고 지역시청자에게 필요한 지역기반의 미디어 서비스 수행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서 나온 방안들은 KBS 지역방송 활성화와 새로운 지역방송 서비스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브라질의 국민 캐릭터 ‘모니카’ 한국 찾는다! –모니카와 떠나는 세계 명화 여행전

브라질의 국민 캐릭터 ‘모니카’와 함께 세계 명화 여행을 떠나보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명화를 재해석한 전시가 한국을 찾는다. KBS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전문기업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주한 브라질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브라질 8개 도시에서 차례로 열려 150만 명을 동원했던 ‘모니카와 친구들’ 전시의 아시아 순회전이다. ‘모니카’는 남미의 월트 디즈니라 불리는 만화 거장 ‘마우리시우 지 소우자’가 1963년 자신의 4살 난 딸을 모델로 창조한 캐릭터로 이번 전시에서 세계 명화와 만났다. 9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갤러리3에서 전시된다. 세계 명화 및 조각 51점과 그의 작품 세계가 담긴 원화 및 오리지널 드로잉 50점 등 총 2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모니카 극장, 모니카 공작소 등 온 가족이 함께 색칠, 접기, 붙이기 등을 통해서 미술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제2의 ‘뽀롱뽀롱 뽀로로’, ‘라바’를 찾아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KBS는 서울산업진흥원,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국내 우수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IP) 발굴을 위한 ‘애니버라이어티 2018’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고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애니버라이어티 사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등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여 제작·투자, 배급,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제작 지원하는 공모행사다. 제작지원금 최대 15억 원이 지원되며, 30개월의 제작과정을 거쳐서 KBS에서 편성된다. 이와 함께 B tv의 다시보기(VOD) 서비스로도 독점 공개된다. 황용호 KBS 방송본부장은 “지상파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국내 최초 애니메이션 <떠돌이 까치>를 제작한 KBS인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순이 삼촌>, <도전 어린이 골든벨>, <불후의 명곡–조용필 음악인생 50주년> 이달의 PD상 수상

한국 PD연합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PD상’(4월, 5월)에 KBS 프로그램이 다수 선정됐다. 218회 이달의 PD상(4월) 라디오 시사·교양 부문에 서정협, 홍순영PD, 성혜정 작가가 제작한 제주 4·3 70주년 특집 다큐드라마 3부작 <순이 삼촌>, 219회 이달의 PD상(5월) TV 교양·정보 부문에 이해돈 PD, 이자성 감독, 장수미 작가가 제작한 <도전 어린이 골든벨>, TV 예능·드라마 부문에 이태헌 PD, 장병민 감독, 정인해 작가가 제작한 <불후의 명곡 – 조용필 음악인생 50주년> 등이 각각 선정됐다. 제주방송총국과 한민족방송의 협업으로 제작된 제주 4·3 70주년 특집 다큐드라마 3부작 <순이 삼촌>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기존 다큐멘터리 형식에서 탈피해 라디오 드라마를 접목시켜 제주 4·3 현장의 피해자 인터뷰와 제주 4·3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한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 삼촌>을 조화롭게 편집해 완성도를 높여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국의 수신료 담당 부서장들 한자리에…

전국의 수신료 담당 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난 17일 본관 대회의실에서는 ‘수신료 목표 달성 점검 회의’가 열렸다. 재원관리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실적점검 및 수입목표 달성 방안, 수신료 징수기반 안정화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체되어있는 세대증가율로 수입 둔화가 예상되는 수신료 징수환경, 부족한 인력상황, 민원대응, 자원 발굴 개선방안, 경기침체를 감안한 합리적인 목표배정 등에 관해 논의하며 하반기 수입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올해 수신료수입 목표는 6,542억 원이며, 공사 전체 수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내 손 안의 상식’ KBS 뉴스X 더퀴즈라이브!

KBS 뉴스가 젊은 층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라이브 퀴즈쇼 ‘더퀴즈라이브’ KBS 뉴스 특집편을 마련했다. KBS 뉴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독보적이고 기발한 문제를 기자와 앵커가 직접 출제한다. 우승까지는 총 10문제,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 30분 더퀴즈라이브 앱에서 참여할 수 있다.

지극히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한 이들이 일생 하나뿐인 사랑을 지켜내고 끝내 행복을 찾아가는 사랑과 성공스토리를 담은 2TV 새 일일드라마 <끝까지 사랑>이 찾아온다. 주로 주부나 중년 시청자가 많이 보는 저녁 일일극답게 선과 악의 뚜렷한 대립, 가족과 멜로를 전면에 내세웠다.

돌아온 시청률의 여왕 이영아와 일일극 황태자 강은탁

출연하는 작품마다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 자타공인 시청률의 여왕 이영아는 오랜만의 일일극 컴백에서 사랑스러운 열혈 똑순이 한가영이라는 캐릭터를 맡아 더욱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녀와 함께 로맨스 합을 맞출 남자 주인공은 일일극의 황태자 강은탁으로 무뚝뚝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누구보다 자상하고 섬세한 윤정한 역을 맡아 일에 매달리느라 연애경험 제로에 내숭 없고, 가식 없고, 거침없는 3무의 '돌직구'녀 한가영과 아슬아슬한 롤러코스터 로맨스를 펼친다.

천사의 마스크를 쓴 팜므파탈 홍수아의 미워할 수 없는 악역

무엇보다 홍수아의 첫 악역 도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극중 그녀가 맡은 강세나는 기존의 일차원적인 악녀 캐릭터을 벗어나 자신의 욕망과 생존을 위해 악녀의 길을 선택한 운명의 희생양으로 그려진다. 그녀를 가혹하게 내친 운명에 대한 도전과 복수를 감행하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워도 미워할 수만은 없는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베일 속에 감춰진 강세나의 미스터리한 과거가 한꺼풀씩 벗겨지며 호기심과 긴장감을 서서히 증폭시켜나갈 전망이다.

이응경, 김하균, 박지일, 김일우, 배도환 등 '믿보배' 총출동

<끝까지 사랑>이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가족애다. 작품 안에는 이혼가정의 아픔과 재혼가정의 고충부터 재벌가의 일그러진 민낯까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한다. 김하균, 이응경, 김일우, 배도환, 박지일, 남기애 등 베테랑 출연진은 다양한 부부의 삶을 탄탄한 연기력으로 그려내 각 캐릭터에 현실감과 생명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매주 월~금요일 저녁 7시 50분, 2TV

KBS 사보
www.kbs.co.kr
발행인 양승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전화(문의 및 구독신청)** 781-2824, 2828, 2817
편집인 김종명 **취재** 유승영 우수경 정환욱 김한나 한지연 김빈나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김채원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